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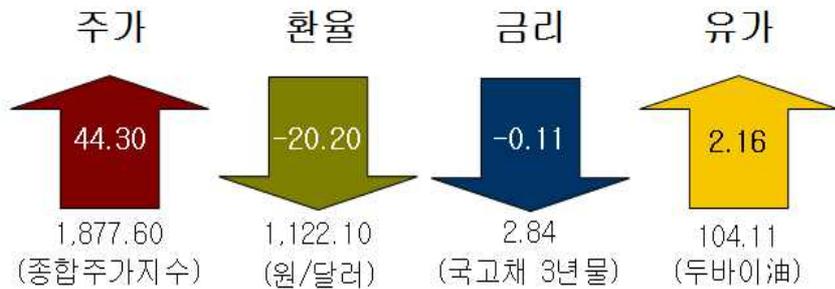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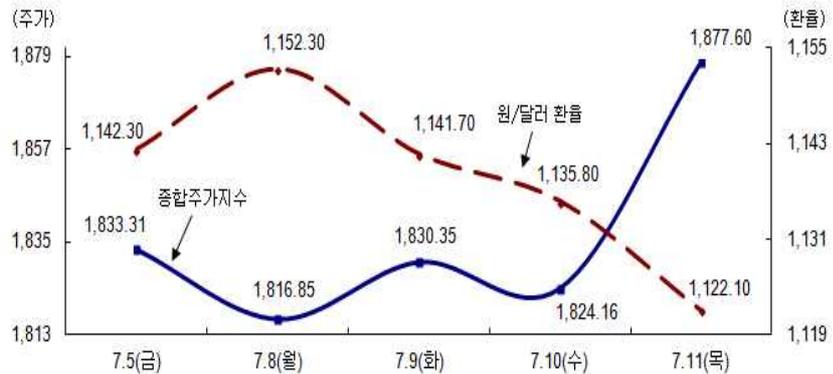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구매력평가 환율로 본 엔화 가치

- 엔화 가치 20년래 최저,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5~7.1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구매력평가 환율로 본 엔화 가치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김 천 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구매력평가 환율로 본 엔화 가치

#### ■ 엔화 가치 하락

최근 달러화 대비 엔화의 가치는 일본 정부의 엔화 약세 정책 추진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엔화 가치가 과거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화와 원화 대비 엔화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 ■ 엔화의 구매력평가 환율 비교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달러당 엔화 환율은 2007년을 제외하고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엔화의 가치가 최대로 하락했던 시기는 2007년으로 기준년인 1991년에 비해 최대 20% 이상 저평가되었다. 당시 일본 엔화는 국가 경쟁력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경상수지가 24.8조엔 흑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3년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기준 시점보다 17.6% 저평가되어 2007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엔화는 원화에 대비해서도 크게 저평가되어 20년래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일본 엔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해 가장 저평가된 시기 역시 2007년으로 약 30%까지 저평가 되었다. 올해 들어 엔화 가치는 원화에 비해 18.1%까지 저평가되어 2007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엔저의 충격은 국내 경제에 있어서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1% 절상되면 국내 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엔화가 원화에 대한 저평가가 지속될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엔화 약세는 일본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감소 및 내국인의 일본 관광 증가와 함께 기존에 국내로 유입되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관광수지 또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 시사점

엔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환 시장 시장 안정화 및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엔저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통화 공조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제품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품질, 문화 등 비가격 경쟁력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 측면에서 주요 핵심 고기술 수입 중간재에 대한 국산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 구조 측면에서 수출의존형 구조를 내수의존형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경제민주화 등 기업 규제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 1. 개요

- 최근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빠른 속도로 절하되고 있어,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의 특성상 엔저로 인한 피해가 우려 되는 상황
  -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일본 정부의 엔화 약세 정책 추진으로 작년 9월부터 빠른 상승세를 지속
    - 엔화 환율은 5월 10일 달러당 100.6엔을 기록하며 2009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100엔대를 돌파하였고, 7월 11일 현재 98.9엔을 기록
    - 엔화 환율은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9.7% 절하되어 주요국 통화중 가장 큰 폭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
    - 하지만 엔/달러의 명목 환율은 아직까지 2007년 수준인 120엔 보다 약 20엔 가량 하회
  - 일본과 한국은 수출 경합도가 높아 엔화 및 원화의 달러 대비 저평가 여부 뿐만 아니라,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적정 수준 여부가 양국 간 경쟁력에 중요
    -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선박, 플라스틱제품, 철강, 정밀기기, 유기화학품, 철강제품 등이 일본 10대 수출 품목과 중복
    -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수출경합도는 석유제품(0.870), 선박(0.657), 수송기계 (0.627) 등 주요 수출품들의 경합도가 매우 높음
- 본 보고서에서는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으로 현재 엔화 수준을 과거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

< 엔/달러와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한일 품목별 수출경합도 추이 >

품목	수출경합도
석유제품	0.870
선박	0.657
수송기계	0.627
비전기기계	0.556
가죽, 고무	0.556
금속	0.537
화학제품	0.506
전기기계	0.490
섬유 및 의류	0.447
목재, 종이	0.419
전체	0.481

자료 : 무역협회

주 :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상이함. 1에 가까울수록 경쟁관계

< 과거 엔화 절하 시기 >

○ 엔/달러의 명목환율이 큰 폭으로 절하된 시기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최근의 네차례

- 제1차 : 1988년 5월부터 1990년 5월까지 진행되었던 엔저로 환율은 달러당 124.8엔에서 153.5엔으로 18.7% 절하
  - 엔저를 불러온 배경으로는 미국 저축대부조합(Saving & Loans) 파산사태와 일본 주식 및 지가 급등 후 급락에 기인
  - 원화는 달러 당 736원에서 709원으로 3.8% 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화의 대 엔화 환율은 100엔당 590원에서 462원으로 27.7% 절상되었음
- 제2차 : 1995년 6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약 1년 남짓 진행되며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85.4엔에서 109.4엔으로 22.8% 절하
  - 당시 엔저의 원인으로는 1995년 4월의 역플라자 합의에 기인
  - 원화는 달러당 761원에서 813원으로 6.4% 절하되었고, 100엔 당으로는 901원에서 743원으로 21.3% 절상
- 제3차 : 2004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약 2년반에 걸쳐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진행 되었으며,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03.8엔에서 122.6엔으로 15.3% 절하
  - 일본 당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의 외환시장에 개입이 엔저의 주요 요인
  - 원화는 달러당 1,051원에서 928원으로 13.3% 절상되었고, 100엔당으로는 1,012원에서 757원으로 33.7% 절상

< 주요 엔저 시기 비교 >

구분		1차 (1988.5~1990.5)	2차 (1995.6~1996.7)	3차 (2004.12~2007.6)	4차 (2012.9~현재)
환율	엔/달러	18.7% 절하 (124.8→153.5)	22.8% 절하 (84.5→109.4)	15.3% 절하 (103.8→122.6)	19.7% 절하 (78.2→97.4)
	원/달러	3.8% 절상 (736→709)	6.4% 절하 (761→813)	13.3% 절상 (1,051→928)	1.1% 절하 (1,124→1,137)
	원/100엔	27.7% 절상 (590→462)	21.3% 절상 (901→743)	33.7% 절상 (1,012→757)	23.4% 절상 (1,439→1,166)
배경	경기 여건	미 S&L 파산 일 주식 및 지가 급등 후 급락	역플라자 합의 (1995.4)	일본,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선진국 양적완화 일본 아베노믹스

자료 : 한국은행, IMF 자료 이용하여 재구성

## 2. 엔화의 구매력평가 환율 비교

- (분석방법) 현재 엔화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하여 분석
  - 구매력평가 환율 : 현재 엔화가 과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기 위해, 구매력평가 환율을 사용
    - 구매력평가 환율은 양국 간 환율의 변동률이 양국의 물가수준 변동률의 차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특정시점을 한 지수의 형태로 표시
    - 달러화 대비 엔화의 구매력평가 환율 상승은 일본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이 향상된 것을 나타내며, 이를 실질절하(real depreciation)라 부름
    - 일본의 국제경쟁력은 명목환율이 상승할 때뿐만 아니라, 외국의 물가수준이 상승하거나, 일본의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에도 향상
  - 산출 방식 : 구매력 평가 환율을 구하는 방식은 명목환율과 외국의 생산자물가, 그리고 국내의 소비자물가를 이용하여 산출
    - 달러화 대비 엔화의 구매력평가 환율은 달러당 엔화의 명목환율에 미국의 생산자물가를 곱한 후 일본의 소비자물가를 나누어 산출
    - 엔화 대비 원화의 구매력평가 환율은 엔화당 원화의 명목환율에 일본의 생산자물가를 곱한 후 한국의 소비자물가를 나누어 산출

### < 구매력평가 환율 산출 방식 >

1. 엔/달러 구매력평가 환율 = 엔/달러 명목환율  
× (미국 생산자물가/일본 소비자물가)
2. 원/엔 구매력평가 환율 = 원/엔 명목환율  
× (일본 생산자물가/한국 소비자물가)

- 분석기간 : 일본 경제가 과거와 구조적인 변화를 보인 1991년부터 현재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1991년을 기준(=100)으로 정의하였으며, 구매력평가 환율이 100보다 높으면 저평가, 100보다 낮으면 고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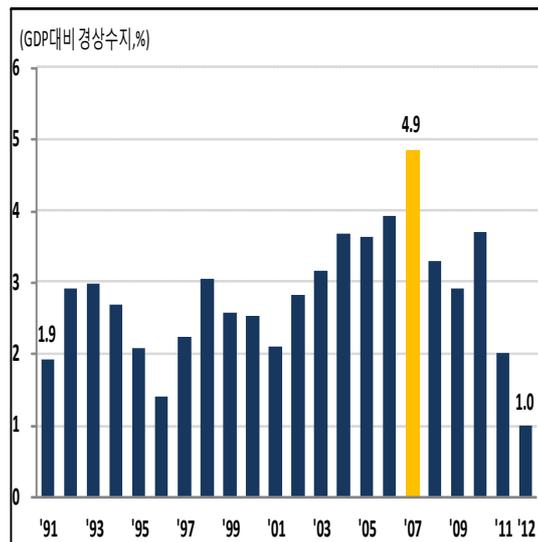
-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달러당 엔화 환율은 2007년을 제외하고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
  - 달러화 대비 엔화의 구매력평가 환율은 기준시점 대비 17.6% 저평가되어 엔화가 가장 낮았던 2007년 수준에 근접
    - 1991년을 기준(=100)으로 일본 엔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 환율로 계산할 때, 2007년은 기준년인 1991년에 비해 최대 20% 이상 저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며 지속적으로 고평가되었으나, 최근 엔화 약세로 구매력평가 환율이 크게 저평가되어 현재 기준시점 보다 약 17.6% 저평가
  - 엔화는 2007년에 일본의 국가 경쟁력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 엔화 환율이 120엔대를 기록하였던 2007년 일본의 경상수지는 24.8조엔 흑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같은 기간 일본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역시 4.9%로 다른 기간에 비해 과도한 흑자폭을 보임
    - 최근 엔화 저평가로 일본의 무역수지 및 관광수지가 일정 시차를 두고 개선되어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임

< 엔/달러의 명목환율 및 구매력평가 환율 >



자료 : 한국은행, 각국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작성  
 주 : 1991년 1월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 환율이 100보다 높으면 달러 대비 엔화 저평가, 100보다 낮으면 고평가

< 일본의 GDP 대비 경상수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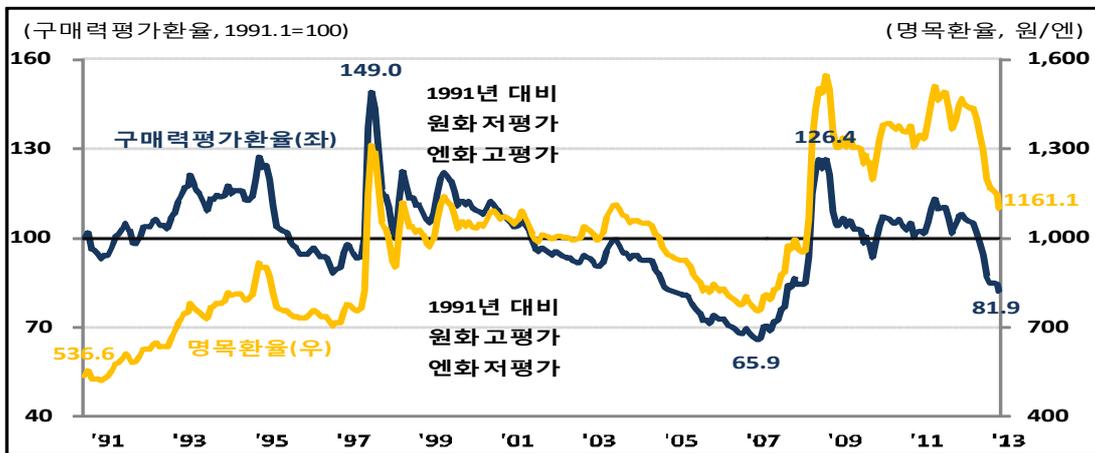


자료 : IMF

○ 엔화는 원화에 대비하여서도 크게 저평가되어 20년래 최저 수준에 근접

- 현재 엔화는 원화에 대비하여 기준시점(1991년) 대비 약 18.1% 저평가
- 일본 엔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해 가장 저평가된 시기는 2007년으로 약 30% 이상 저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는 원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였지만, 최근 일본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로 엔화는 원화에 비해 약 18.1% 저평가되어 2007년 수준으로 회귀

< 원/엔의 명목환율 구매력평가 환율 >



자료 : 한국은행, 각국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작성  
 주 : 1991년 1월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 환율이 100보다 높으면 엔화 대비 원화 저평가, 100보다 낮으면 고평가

< 엔화의 실질실효환율 >

-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현재 엔화가 가장 저평가된 시기인 2007~08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현재 기준치보다 약 20% 이상 절하된 상태



자료 : OECD, 한국은행  
 주 1) 실질실효환율은 물가와 교역비중을 고려해 실질구매력을 반영한 지수, 기준시점 대비 100보다 크면 고평가, 100보다 작으면 저평가를 의미

### 3.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엔화가 달러와 원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크게 절하되며, 국내 수출 둔화, 관광수지 악화 등이 우려됨
- 국내 수출 둔화 : 원화와 달러화에 대한 엔화 약세로 국내의 수출 둔화가 우려됨
  -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며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12년 3/4분기 -8.1%, 4/4분기 -5.5%에서 2013 1/4분기 1.7% 2/4분기 7.0%로 회복세
  - 엔화 가치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이 영향을 받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J커브 효과<sup>1)</sup>로 현재까지 국내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지만, 하반기부터 점차 엔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임
  - 원/엔 환율이 1% 하락시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sup>2)</sup>
- 특히 원화의 엔화에 대한 고평가가 지속될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엔화 약세로 對일본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월 -17.2%, 3월 -18.7%, 4월 -11.5%, 5월 -11.6%, 6월 -11.5%로 급락

#### < 한국과 일본의 수출 증가율 >

(%, 전년동월대비)

	'12.1/4	2/4	3/4	4/4	'13.1/4	2/4
한국	2.9	-1.7	-5.8	-0.4	0.4	0.8
일본	-2.0	5.2	-8.1	-5.5	1.7	7.0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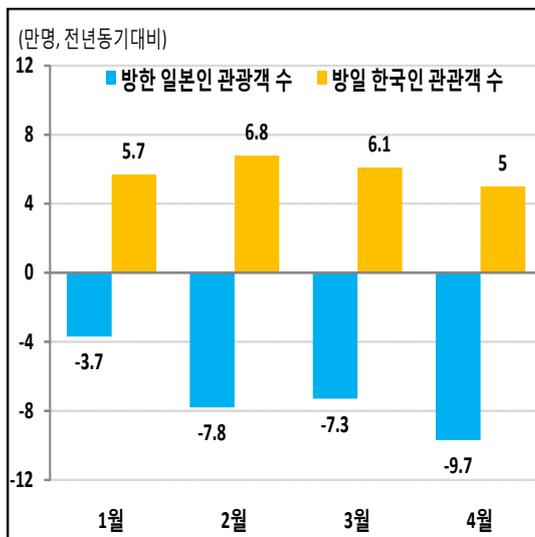
주 : 일본의 2013년 2/4분기는 4월, 5월 평균

1) J-curve효과란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수출, 수입의 수량변동은 가격의 변동보다 느리게 나타나는 현상

2) “나홀로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급락 우려” (현대경제연구원, 2013. 3. 16) 인용

- 관광수지 악화 : 엔화 약세로 일본인의 한국 방문은 줄어들고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늘어나 관광 수지 악화가 우려
  -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누적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8.6만 명 감소한 반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누적 관광객수는 23.6만 명이 증가
  - 2013년 1~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누적 기준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손실액은 2.6억 달러,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손실액은 3.1억 달러로 총 5.7억 달러의 관광수지 손실 발생
  - 이것은 1~4월의 누적 경상수지인 42.9억 달러의 13.8%에 해당

< 한일 관광객 증감 추이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일본 관광청

< 2013년 관광수지 전망 >

(단위 : 달러)

	방한 일본인 관광객 소비 감소	방일 한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	관광 수지
100엔	7.6억	3.3억	-10.9억
110엔		3.0억	-10.6억
120엔		2.8억	-10.4억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4. 시사점

-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국간 통화 공조 체제 강화, 국내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 중간재에 대한 국산화 지원 정책, 수출의존형 구조탈피,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 엔화 약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외환시장 안정화 및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이 필요
  -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엔 환율 급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수출보험공사 등의 대 중소 수출기업 지원 사업 및 환위험 인식 교육 사업 등을 확대
  - 엔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와 외환 리스크 관리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관련 국가들과 통화 공조 체제 강화
  - 향후 엔화 대비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 확대 등도 검토할 필요
  - 엔저 지속에 따른 피해 국가들과 함께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G-20 등을 통한 통화 공조 방안 및 공동 대응 전략 마련
  
- 제품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품질, 문화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R&D 제고를 통해 세계 선도제품 개발에 나설 필요
  - 주요 수출시장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
  - 해외시장 개척능력이나 엔화 약세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류 등을 활용한 코리아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강화
  
- 산업 측면에서 주요 핵심 고기술 수입 중간재에 대한 국산화 지원 정책을 강화
  - 최근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산 중간재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높은 대일 중간재 의존도 심화가 우려
  - 중간재 수익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요인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수익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의 중간재 산업의 국산화 지원 정책이 필요

- 경제 구조 측면에서 수출의존형 구조를 내수의존형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
  -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57%로 미국(14%), 일본(16%), 중국(25%) 등과 비교할 때 대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수출의 의존적 구조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경제의 안정성이 저하되기 쉬우므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내수의 경제 성장 견인 능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
  
-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기업 규제 정책을 자제
  -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품목의 품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
  -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펀드 조성 등을 통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
  - 경제민주화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기업 규제 정책을 자제

김천구 선임연구원 (ck1009@hri.co.kr, 02-2072-6211)

< 참고 > 원화와 달러화의 구매력평가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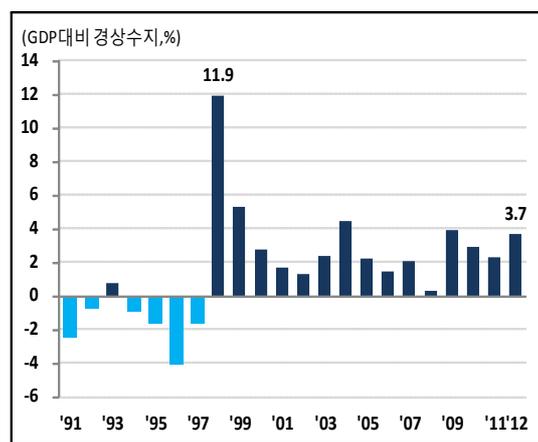
- 원화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달러화에 비해 저평가 되어 현재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
  - 원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원화 약세를 유도하며 현재까지 저평가 상태를 유지
    - 외환위기 이전 원화 환율은 달러에 대비하여 고평가 되었으나, 1997년 이후 원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며 실질환율이 저평가 상태로 전환
    - 실질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부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고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실질환율은 다시 저평가 상태로 전환된 이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최근까지 저평가 상태
  - 외환위기 이전 원화 고평가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원화의 평가절하로 경상수지 흑자 구조로 전환
    - 원화 환율이 고평가 되었던 1997년 이전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저평가 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늘어났으나 이후 원/달러 환율이 균형환율에 도달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원화 약세 유도로 환율이 크게 저평가 되어 경상수지 폭이 확대

< 원/달러의 실질환율 및 명목환율 >



자료 : 한국은행, 각국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작성  
 주 : 1991년 1월을 기준으로 실질환율이 100보다 높으면 달러 대비 원화 저평가, 100보다 낮으면 고평가

<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



자료 : IMF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4	1.7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6	-0.1	-0.2	-0.1	-0.6	-0.6
일본	-0.6	-7.3	-2.8	10.4	0.6	2.0	5.3	-0.9	-3.5	1.0	2.0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7.8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7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7월 5일	7월 1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74	2.57	-0.17%p
	엔/달러	77.66	79.37	85.86	100.27	98.88	-1.39¥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2903	1.3140	0.0237\$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136	15,461	325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4,310	14,473	16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95	2.84	-0.11%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42.3	1,122.1	-20.2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833.3	1,877.6	44.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7월 5일	7월 1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103.15	104.79	1.64\$
	Dubai	104.89	92.89	107.99	101.95	104.11	2.16\$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0.7	286.68	5.9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2.6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1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5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1.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7	294	431	39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70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589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31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6	2.2	1.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5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105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